

우리 시대의 진보에 대하여

생명평화결사 이남곡등불(삼호농산 대표)

충북진보 webmaster@jpgb.net

진보는 특정한 사상, 이론, 정치적 입장, 정서(情緒)나 사회 시스템과 결합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의 요구도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가는 것이 진보적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선호하면 보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진보라던가, 투쟁은 진보의 길이고 타협은 보수의 편이라던가, 친북 반미면 진보이고 반북 친미이면 보수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事實)의 세계에서 의미가 없어진 사고방식을 관념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니 하는 것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막힌 사고'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보'란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던 틀을 넘어서서, 인간의 궁극적 진화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사회와 인간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해 낙관적이며, 그것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단히 혁신하려는 '열린 사고'의 실천을 진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진화에서 인간의 출현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 이전의 질서로부터 인간 이후의 질서로 변화해 가는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류의 진화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대립 투쟁'으로부터 '상생 협력'으로 세상이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야말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 그가 떠난 동물계(動物界)와 그가 나가려는 새로운 질서(이것을 그 동안은 신성, 영성, 자유의 왕국 등으로 불러 왔지만)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수성(獸性)에 발목을 잡힌 채 끊임없이 신성(神性)을 추구합니다. 한 개인 안에서, 세계의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다고 하는데도 세상에는 매일 증오와 살육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나온 바탕에서 더 나아가기(進歩) 위해서는 증오와 투쟁의 악순환을 종결시키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보란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해 왔고, 지금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회혁명과 민주화

운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유를 확대해 왔고, 과학 혁명과 기술혁명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 두 세계의 진보가 두드러진데 비하면 인간의 마음의 세계에서의 진보는 상당히 더딥니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과거 100년 전에 비해 비할 수 없이 좋아진 조건 속에서도 진보에 대한 비전을 오히려 더 못 갖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유를 확대해 가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관념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큰 흐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관념계의 자유를 추구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고, 이것은 인간 존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관계속에서 사회제도의 변혁을 통한 사회적 자유의 확대나 물질적 생산력의 증진을 통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과 유리되어서 때로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되어온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세 분야가 깊이 서로 침투해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야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은 우주 자연계와의 조화 속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자유는 자연계와 모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간의 자유나 행복 추구가 자연과의 모순을 일으킨다는 사고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자유 추구가 근본적으로 자연과의 모순을 일으킨다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자유 추구는 인간이 우주 자연계에 갖는 특수한 입장을 잘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자유의 방향을 제대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갖는 가장 고귀한 특질을 더욱 신장시켜 감으로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분야(사회관계, 물질, 의식)에서의 상호 침투와 우리 시대에 맞는 세 가지 분야의 올바른 배치를 통한 새로운 진보는 보편적 흐름으로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진보를 위한 이론, 실천들이 발전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룩해온 진보를 위한 자산(한 세기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들을 최대로 살려서 전쟁과 독재,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복합적이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보의 삶'인지 알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일까요.

절대선(絶對善)이 아니라 부득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세상의 현실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하지만 그것이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여백(餘白)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증오' 대신에 '이해'를 갖게하는 바탕이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분야와 그 상호 침투하는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진보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의 관점에 불과합니다.

1)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제도의 발전

첫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생명을 살상하거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범죄로서 너무나 명백한 침범입니다. 요즘은 햇빛을 가리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침범으로 되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과 법률로 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독재를 비롯한 정치적 억압, 즉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생기는 침범은 알기 쉬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교묘히 복잡화된 시스템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몫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할 것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침범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것들마저도 잘 알아차리고 그 선을 넘어 침범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들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침범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고, 침범하려는 마음이 있는 한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국가적 관계속에서 부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정의를 넓혀 가는 것은 여전히 진보의 기초적 표지(標識)로 됩니다. 자신의 폭(幅)을 넓히지 않도록 일정한 선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진보의 핵심이었습니다.(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기본 테마로 되어 있는 사회, 국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면에서의 진보는 투쟁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침범하는 자가 그냥 양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외적 현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투쟁은 어느 정도 분노와 증오를 그 자양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투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인간 이후의 새로운 질서이지만 그러나 이 분노와 증오하는 자양분은 기본적으로 수성(獸性)에 속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목표와 방법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그 동안 인류가 바친 노력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지금도 투쟁해야 이루어 질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싸우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일까요.

나는 그 길이 '미움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것은 종래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서 더욱 간곡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의식화(意識化)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자각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투쟁하려는 의지를 신장시키는 길(공포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적개심이나 분노는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이었다면 앞으로 필요한 의식화(意識化)는 증오와 분노를 넘어

서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산물입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명백하게 침해되고 있을 때 공포를 넘어 분노하고 불의를 증오하는 것은 침해받고 있는 생명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는 그 자체가 자기중심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질이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식화, 즉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지금 한 단계 더 진화된 사회로 나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세상이 복잡한 연관 속에 있고, 인간의 의식이 아직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이라크의 예를 들어봅시다. 후세인의 폭압정치는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근본에서부터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압정치를 스톱시키는 것은 진보를 위한 가장 큰 목표로 됩니다.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국민들의 자주에 대한 욕구(경제적 정의와도 관련된다)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에 반(反)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세계와 인류의 진보(자유, 평화, 번영)를 위한 길이 될까요.

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 될까요.

2)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력의 발전

둘째는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침범할 필요가 없도록 물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인간을 생각할 때 물질적 욕구를 정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단순 소박한 삶'이나 '생태적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킨 여유 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인 사회나 나라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현실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지구적 범위에서 총량 면에서 인류의 총수요를 넘어서는 생산력이 가능해 졌다는 것은 인류의 진화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산력이 자연과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은 결국 반생산력(反生産力)으로 되고 맙니다. 지금의 과제는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기특(奇特)한 개인들에

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의 보편적 의식과 욕구를 정확히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수요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 자본주의적 소외로부터 자유롭게 위해서, '가난'이 나'내핍'을 선택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의 욕구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예술적 욕구가 커지면 물질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사람의 욕구의 질이 바뀌어 '소박하고 단순한 삶'으로 되는 것은 진정한 풍요에의 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한 길이지만 강요에 의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바탕이 되는 '희소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다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정된 지구 자원이나 생태계의 파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인간의 지능은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과학 기술 능력이 못 미칠까 하는 것보다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저로서는 물자가 풍만해서 다룰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유 제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할 때 적어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시스템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높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한 그것은 진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충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의식의 변혁이 함께 이루어지고 조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예술적 욕구(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욕구)가 커져서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산할 때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심성으로의 변혁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룰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물자의 흐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보, 즉 궁극적인 인간의 진화를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우선 자신의 의식을 혁명하여 새로운 사회를 책임 있게 준비해 가야합니다. 저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집단이라야 새로운 사회를 말할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문명 부정적인 생태주의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보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자본주의나 불평등이 확대되는 세계화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전망과 실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의식혁명 ; 자기중심적 가치체계의 변혁

셋째는 인간 자체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즉 의식을 혁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인간 이

외의 자연도 포함)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싶게 되는 인간으로 서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세 번째야 말로 지금 시대에 진보를 위한 제 연관(제도, 물질, 의식) 가운데 중심 고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 동안 인류는 물질적 생산력과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서는 놀라운 성과들을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생산력은 자연과의 모순이라는 벽 앞에 부딪혀 있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물신에 의한 지배'라는 족쇄에 묶여 근본적인 자유 평등에 도달하는 것 또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이런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을 변혁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의식을 혁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계에서 그 독특한 지위를 발전시켜 온 것은 그가 지닌 지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능을 사용하는 면에서 불균형이 있어 왔는데, 현대에 와서 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돼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불균형이란 인간이 자신 이외의 것을 변화시키는 데 그 지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위능력은 고도로 발달하였는데, 인간의 자기중심적 가치이념체계는 그다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둘 사이의 모순은 인간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은 엄청난 위력의 핵 에너지를 발전시켰지만, 변함없는 자기중심적 가치체계 때문에 인류가 절멸할 수 있는 핵 전쟁의 위협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간다(진보)는 것은 그 행위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체계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에고와 소유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진보의 핵심은 인간 자체를 진보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물신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이 세 번째가 어느 만큼 진척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불평등이나 부정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선구적 개인이나 집단일수록 자신을 변혁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침범해 와서 양보할 수 없다. 한번 밀리면 끝장이니까.”

이 악순환을 끝내는 길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싶은 인간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투고 따지는 사회는 아무리 해도(첫째와 둘째가 아무리 잘 갖춰진다해도)따뜻한 사회로는 될 수 없고 그 속에서는 결코 안정된 평화나 행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식혁명 은 과거의 도덕이나 윤리 운동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 다'거나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잘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직은 개인의 생명력을 해방시키는 과정에 있다 보니 자기중심성이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도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신세대의 높은 자유도(自由度)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도를 바탕으로 의식의 보다 높은 자유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각(自覺)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각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올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는 앎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도덕이나 윤리처럼 옳은 것이니까 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자기의 궁극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결국 자기 관념을 정상화하는 것 즉 자신의 예고를 넘어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 의식혁명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근래에 아집이나 소유를 넘어서는 마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성행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관념 안에서만 추구된다면 진실한 것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회적 실천 과 하나로 될 때만 진정한 마음의 자유로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과 자원 봉사나 기부와 같은 사회적 실천이 의식혁명 이 정도(正道)를 걷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일견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첫 번째를 위해서 그 동안 인류는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 왔고, 현상을 변화시켜온 주무기는 투쟁이었기 때문에 사랑이나 상생과 같은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물질적 풍요가 비인간적 경쟁과 수탈, 부조리가 결합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순박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보를 이야기하면 부정과 부조리가 많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인가 하고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진척되어온 일들을 하나의 사실로 하고, 현재의 사람들의 일반적 욕구를 또 하나의 사실로 하고 그러면서도 인간 존재가 궁극적으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우주 진화의 최첨단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위에 말한 세 가지 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진보를 위한 협조자이며 동맹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 생명평화결사 이남곡등불님은 젊은 시절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변혁에 애쓰다가 감옥살이(남민전사건 연루)를 하기도 하셨고, 이 후 보다 근본적인 길을 찾아 불교사회 연구소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념과 삶이 일치되길 꿈꾸며 무소유공동체 야마기시즘 실현지에 살다가 지금은 전북 장수의 좋은 마을에서 좋은 욕구, 좋은 생산, 좋은 유통을 실현하고 계십니다.